

아막성(阿莫城) 위치 설정과 역사적 가치

백옥중*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서부 경남의 산성과 아막성 |
| 2. 운봉고원 일대의 역사지리적 환경 | 6. 맺음말 |
| 3. 아막성 문헌기록과 고대 교통로 | 참고문헌 |
| 4. 아막성 전투의 향방과 역사성 | <Abstract> |

국문초록

남원시 아영면에 위치하고 있는 성리산성은 위치와 규모, 명칭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77년 12월 31일에 도 기념물 ‘아막성(阿莫城)’으로 지정되었다. 운봉고원에 다수의 산성 중에서 규모가 크고 교통의 요충지인 아영분지가 한 눈에 조망되는 지리적 입지와 산성의 행정구역 명칭인 아영면과 아막성의 이칭인 아영성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구체적인 매장유산 조사 없이 지정되어 사료적 가치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아막성 발굴조사 성과와 『삼국사기』문헌 기록을 검토하여 아막성의 위치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그간 아막성 위치 설정에 대한 연구는 실증적 근거인 고고학 자료의 부재로 인해 문헌 기록에 의존·진행되어 객관적으로 아막성의 위치를 설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2018년부터 이루어진 아막성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3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6~7세기 대 신라의 전형적인 축성법이 확인되었고, 다량의 신라 토기가 출토되어 산성을 운영했던 주체가 신라로 밝혀졌다.

* 남원시청 학예연구사, E-mail: gimungug@korea.kr

『삼국사기』에 기록된 아막성 전투와 산성의 운영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문헌 기록으로 전하던 아막성의 실체가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기왕의 축적된 자료와 새롭게 확인된 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성리산성을 아막성으로 비정하는데 학계의 큰 이견은 없으나 산성 1개소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아막성의 위치를 설정하는 오류가 공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원시에서는 운봉고원 내 자리하는 관방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여타 산성과 아막성의 교차검증을 통해 아막성의 위치를 보다 객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대 교통로에 대한 분석, 경남 서부지역 산성과의 특징, 백두대간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 백제와 신라의 사회상을 검토하여 남원 아막성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주제어 : 성리산성, 아막성, 아막성 전투, 삼국시대, 백제, 신라

1. 머리말

7세기에 접어들어 백제와 신라가 격돌한 아막성 전투는 『삼국사기』에 최소 두 차례 이상 보인다. 한 장소에서의 전투가 이처럼 2회 이상 등장한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이다. 600~651년 사이에 2회 이상 전투가 발생한 곳은 아막성과 가잠성 전투에 불과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아막성의 비중을 읽을 수 있다.¹⁾

한국 고대사에서 문헌 기록에 전하는 중요한 전장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아막성은 그 사례 중 하나로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운영 주제와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은 그 가치를 더욱 높여 준다.

아막성이 위치한 아영면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모산현으로 오래전부터 아영성, 아막성이라고도 불렸으며, 신라 경덕왕 때 운봉현으로 이름을 고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현재 아막성으로 명명된 유적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까지의 지리서와 일제강점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조선총독부, 1943)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의 유적은 성리산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1977년 ‘아막성’이라는 명칭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아영면 일대의 산성 중 성리산성이 규모가 가장 크고 견고하며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삼국시대

1) 허중권·정덕기, 「602년 아막성 전투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軍使』85.

백제와 신라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아막성으로 비정한 것이다.

아막성은 운봉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라산성으로 인근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자료를 통해 신라가 이 지역을 지배하기 이전부터 대가야 등의 세력에 의해 중심지로 이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 지역에 신라가 진출하면서 아막성을 비롯한 다수의 성곽을 축조하였으며 이러한 거점을 중심으로 백제와의 대규모 전투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었다.

신라는 아막성을 운봉고원 중심거점으로 활용하여 최전방 방어기지로 삼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아영면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방어체계는 거사물현(장수 번암면) 및 고룡군(남원시)에서 속함성(함양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백제의 공격루트를 일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부여 받은 것이며, 여건이 조성되면 신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내지로의 진출을 도모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막성 전투는 554년의 관산성 전투 이후 반세기 만에 벌어진 큰 규모의 싸움이었다. 아막성은 백제와 신라 두 나라가 오랜 기간 치른 전쟁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624년 아막성을 뒤통잡하던 속함성 등까지 모두 백제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후 백제의 이 방면 공략이 최종 마무리된 것은 무려 18년이나 지난 642년의 대야성 함락이었다. 남강 유역으로 진출한 뒤에도 장구한 세월이 걸린 것은 신라가 이 방면을 놓고 그만큼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뜻한다.

대야성 함락으로 구 가야권 전체는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는 90년 전 한강 유역 진출 직후 모습으로 거의 되돌아간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제 백제의 신라 왕경 공략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신라로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를 극복하기 위해 신라는 김춘추가 중심이 되어 고구려, 왜국, 당나라 대상의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사실상 이로부터 삼국 사이의 다툼은 동아시아 국제전의 성격을 띤 통일전쟁으로 비화되어갔다. 이 같은 측면에서 삼국 통일전쟁은 아막성 싸움으로부터 사실상 그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하여도 무방하다. 기왕에 흔히 642년 백제의 대야성 장악을 통일전쟁의 기점으로 잡았지만 사실상 그 단초는 아막성 전투에서였다. 아막성 싸움에서 대야성 싸움까지가 통일전쟁의 제1단계였다면 그 이후부터를 제2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막성 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서 새롭게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중심

으로 남원 아막성의 위치를 설정하며, 이를 토대로 남원 동부지역이 고대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와 역사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2. 운봉고원 일대의 역사지리적 환경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남부의 내륙산악지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지리산지, 북쪽은 진안고원, 서쪽은 적성강과 오수천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동쪽은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과 접하는 산내면 중황리, 서쪽으로는 순창군과 전라남도 곡성군이 나뉘지는 대강면 생암리, 남쪽은 전라남도 곡성군과 접하는 금지면 하도리, 북쪽은 아영면 일대로 장수군 번암면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한다.

선사시대 이래로 국토의 지세를 파악하고 지리를 밝히는 근본을 이루어 온 것이 백두대간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큰 산줄기로서 다시 이곳에서 뻗어나간 여러 갈래의 산줄기가 지역권 및 문화권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었다. 그리하여 백두대간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산줄기는 지역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어,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형성하였고,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놓는 행정 경계를 이루었다.

남원시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동쪽의 낙동강유역과 서쪽의 섬진강유역으로 나뉜다.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사통팔달했던 내륙교통망이 잘 갖춰져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계 소국들을 직접 연결해 주던 간선교통로가 통과하는 교섭창구였다. 남원의 자연환경과 지정학적인 이점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정치적·경제적·문화적·군사적 요충지로서 남원을 성장시키는 데 적지 않은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아영면 일대는 신라의 모산현으로 경덕왕 16년(757) 운봉현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함양의 영현으로 편입되어 남원보다 오히려 함양과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였다.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주던 간선교통로가 통과함으로써 선진문화 및 문물교류의 창구이자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고려 초 남원부에 편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전라도에 편입되었다. 백두대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행정구역상으로 유일하게 전라도에 속한 곳이 남원 동부권이다. 인문지리에서 달리 운봉고원으로 불린다.

이와 같이 남원시 일대와 운봉지역은 해발고도·수계권 등에서 크게 분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은 백제와 신라가 대치하였던 6세기말~7세기 초의 상황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지역은 서부지역권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의 고룡군²⁾ 및 거사물현³⁾과 동부지역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아막성⁴⁾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막성이 위치한 운봉고원 지역은 백두대간으로 나누어지는 남원 동부 지역권에 속하며 남강 수계권에 가까워 섬진강 수계권에 속하는 남원 서부 지역권과 구분된다. 남원 서부지역이 백제 권역이라면 운봉지역은 가야 세력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행정구역으로 보면 경남 서부와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이다. 원래는 가야의 서쪽 방면 관문으로 백제 중앙과 가야 제국을 잇는 교통로 상의 거점이었는데,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지리상 역할을 심분 활용하여 대백제 전선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아막성은 험준한 백두대간으로 동서간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형 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군사·교통의 거점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다.⁵⁾ 높은 위치의 산성은 남원 서부의 낮은 지역 쪽을 감시·경계하기에도 적합하였다. 신라는 백두개간의 여러 고개를 연결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백제를 견제하고, 또 여차하면 남원 서부쪽 백제 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아막성을 축조하고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운봉고원은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십승지지의 하나로 소개된 곳이다. 지리산의 절경이 만든 신선의 땅인 동시에 백성들이 천난·외난·인난을 면하고 살 수 있는 보신처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다산시문집』 권14에서 “남도의 관방은 운봉이 으뜸이고, 추풍령이 다음이다. 운봉을 잃으면 적이 호남을 차지할 것이고, 추풍령을 잃으면 적이 호서를 차지할 것이며, 호남과 호서를 다 잃으면 경기가 쭈그러들 것이니,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관문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산의 지적처럼 운봉고원은 호·영남 최고의 요새이자 관방이었다.

2) 南原小京 本百濟古龍郡 新羅并之 神文王五年 初置小京 景德王十六年 置南原小京 今南原府.(三國史記 卷36, 雜志5 地理3 新羅 全州 南原小京)

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9, 全羅道 南原都護府 古跡. (장수군 번염면과 산서면 일대로 추정)

4) 雲峯縣 本母山縣[或云阿英城 或云阿莫城] 景德王改名 今因之.(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新羅 康州 天嶺郡)

5) 허중권·정덕기, 2012, 『602년 阿莫城 戰鬪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군사』85, 38~41쪽.

3. 아막성 문헌기록과 고대 교통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아막성 전투 기사는 삼국통일 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당시 신라 산성과 그것을 활용한 통치제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아막성 전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막성 전투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⁶⁾이 진행하였기에 본 글에서는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만 하고자 한다.

- a. (602년) 가을 8월에 백제가 와서 阿莫城을 공격했다. 王이 將士들로 하여금 逆戰하게 하여 이들을 대패시켰다. 貴山·箒項이 이곳에서 죽었다.⁷⁾
- b. (616년) 겨울 10월에 백제가 와서 母山城을 공격했다.⁸⁾
- c-1. (602년) 가을 8월에 왕이 出兵하여 신라 阿莫山城을 포위하였다[혹은 母山城이라고 한다]. 신라 왕 眞平이 精騎 數千을 보내 이에 拒戰하였다. 우리 군대가 패하여 돌아왔다.
- c-2. 신라가 小陀·畏石·泉山·甕峯 4城을 쌓았다.
- c-3. 우리 疆境을 침략하여 꺾박하자 왕이 노하여 좌평 解讎에게 명하여 步騎 4만을 거느리고 그 4城으로 진격하여 공격했다. 신라 장군 乾品·武殷이 무리를 거느리고 拒戰하니, 解讎가 패하여 군대를 이끌고 泉山 서쪽 大澤 中으로 물러나, 伏兵으로 이들을 기다렸다. 武殷이 이긴 것을 타고 甲卒 1千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大澤에 이르러, 복병을 發하여 이들을 急擊하였다. 무은이 말에서 떨어지니, 사졸들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은의 아들 貴山이 크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를 말한다면 “士는 전쟁에서 물러나지 말라고하였으니, 어찌 감히 달아나서 스승의 가르침을 떨어뜨리겠는가?” 馬를 아비에게 주고는 곧 小將 箒項과 더불어

6) 이도학, 2021, 「신라 백제의 境界와 아막성과 가잠성」,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남원 아막성의 가치와 의미』, 남원시.

7) 『三國史記』권4, 진평왕 24년 조. “秋八月 百濟來攻阿莫城 王使將士逆戰 大敗之 貴山·箒項死之”

8) 『三國史記』권4, 진평왕 38년 조. “冬十月 百濟來攻母山城”

어 戈를 휘두르며 力鬪하다가 죽었다. 나머지 병사들도 이 장면을 보고는 더욱 분투하여 아군은 패하였고, 解讎는 간신히 모면하여, 單馬로 돌아왔다.⁹⁾

d. 가을 8월에 신라가 동쪽 변경을 침략했다.¹⁰⁾

e. 겨울 10월에 達率 猨訶에게 명하여 군사 8천을 거느리고 신라 母山城을 공격하게 하였다.¹¹⁾

f. 겨울 10월에 신라의 速含·櫻岑·歧岑·烽岑·旗懸·冗柵 등 6城을 공격하여 이곳을 취했다.¹²⁾

g-1. 眞平王 建福 19년(602) 壬戌 가을 8월에 백제가 크게 군대를 일으켜 와서 阿莫[莫이라고도 한다]城을 포위하였다.

g-2. 왕이 장군 波珍干 乾品·武屈·伊梨伐·級干 武殷·比梨耶 등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들을 막게 했다. 貴山·箒項은 함께 少監으로 나섰다. 백제가 패하여 泉山의 澤으로 물러나 伏兵으로 이들을 기다렸다. 아군이 진격하다가 힘이 다하여 이끌고 돌아왔다. 그때 武殷이 군대의 후군이 되어 군대의 꼬리에 섰는데 복병이 갑자기 나와 갈고리로 그를 떨어뜨렸다. 貴山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듣기로 스승께서 말하시기를 ‘士는 전쟁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으니 어찌 감히 달아나겠는가?” 賊 數十人을 격살하고, 자신의 馬로 애비를 보내고 箒項과 함께 戈를 휘두르며 力鬪하였다. 諸軍이 이를 보고는 奮擊하니 넘어진 시체가 들에 가득 찼다. 한 필의 馬와 한 쌍의 수레도 돌아가지 못했다. 貴山 등도 온몸에 베인 상처로 도중에 죽었다. 王이 羣臣과 더불어 阿那의 들판에서 맞아 시신 앞에서 통곡하고, 禮로써 殯葬하고 貴山에게 奈麻를, 箒項에게 大舍 베풀을 추증해 내려주었다.¹³⁾

9) 『三國史記』 권27, 무왕 3년 조. “秋八月 王出兵 圍新羅阿莫山城[一名母山城] 羅王眞平遣精騎數千拒戰之 我兵失利而還 新羅築小陁·畏石·泉山·甕岑四城 侵逼我疆境 王怒令佐平解讎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乾品·武殷 帥衆拒戰 解讎不利 引軍退於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 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子貴山大言曰 吾嘗受教於師曰 士當軍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教乎 以馬授父 即與小將箒項 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讎僅免 單馬以歸”

10) 『三國史記』 권27, 무왕 6년 조. “秋八月 新羅侵東鄙”

11) 『三國史記』 권27, 무왕 17년 조. “冬十月 命達率猨訶領兵八千 攻新羅母山城”

12) 『三國史記』 권27, 무왕 25년 조. “冬十月 攻新羅速含·櫻岑·歧岑·烽岑·旗懸·冗柵等六城 取之”

위 기사는 백제와 신라가 국운을 건 전면전, 아막성 전투의 경과 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고대 교통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막성 전투를 위해 백제와 신라가 이동했던 교통로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현재 아막성의 위치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까지의 지리서와 일제강점기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조선총독부, 1943)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삼국시대 당시 아막성의 지리적 중요성은 조선시대 교통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역로와 『대동지지』의 10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봉현의 인월역은 오수도에 속하며(오수역, 현 남원 이백면 효기리), 그리고 인월역으로 이어진다. 『대동지지』의 10대로는 서울에서 전국 각지로 이어지는 10개의 주요 교통로인데 아막성이 위치한 도로는 ‘남지통영별로’로 불렸으며, 노선은 삼례역, 추천, 전주, 만파관, 노구암, 소치, 오원역, 마치, 오수역, 울치, 남원, 삼천점, 여원치, 운봉, 팔랑치, 함양으로 이어진다.

대체로 위에서 말한 역도와 일치하며, 남원에서부터 24번 국도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원한 조선시대 교통로의 특징은 바로 남원에서부터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처럼 ‘남원’에서 함양으로 이어지는 길이 중시된 것은 남원경이 설치된 통일신라 이후 혹은 운봉현이 남원의 속현이 된 고려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교통로를 따라서 운봉현의 중심지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막성이 축조된 삼국시대에는 어떤 교통로가 중시되었을까? 그것은 가야와 백제, 신라와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에서 운봉고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굳이 남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 가야나 신라가 운봉고원을 통해 백제 방면으로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아영면에서 번암면을 살짝 거쳐 751번 지방도(복성이재)를 따라 바로 장수군 산서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영면 성리에는 아막성이 있고 산서면 봉서리와 남원 보절면 성시리의 경계에는 거물성으로 추정되는 성시리산성이 있다. 거물성이 그곳에 비정되는 것은 그 일대가 신라 임실군의 영현인 청웅현이었기 때문이다. 청웅현의 본명은 거사물현인데 거물성과 이름이 통한다.

문무왕 3년(663) 2월에 흠순과 천존이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의 거열성을 공

13) 『三國史記』 권45, 貴山傳. “眞平王建福十九年壬戌秋八月 百濟大發兵 來圍阿莫[一作莫]城 王使將軍波珍干乾品·武屈·伊梨伐·級干武殷·比梨耶等 領兵拒之 貴山·箒項並以少監赴焉 百濟敗 退於泉山之澤 伏兵以待之 我軍進擊 力困引還 時武殷爲殿 立於軍尾 伏猝出 鉤而下之 貴山大言曰 吾嘗聞之 師曰 士當軍無退 豈敢奔北乎 擊殺賊數十人 以己馬出父 與箒項揮戈力鬪 諸軍見之 奮擊 橫尸滿野 匹馬隻輪無反者 貴山等金瘡滿身 半路而卒 王與羣臣 迎於阿那之野 臨尸痛哭 以禮殯葬 追賜位貴山奈麻 箒項大舍”

격하여 차지하였고, 또한 거물성과 사평성을 공격하여 항복시켰으며, 덕안성을 공격하여 1,070명의 목을 베었다고 되어 있다(『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3년). 이때 사평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거열성(현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서 거물성을 거쳐 덕안성(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방면으로 진격했음을 알 수 있다. 거열성에서 거물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함양을 거쳐 바로 위해서 말한 교통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정리하면 운봉현(본명 모산현, 아영성, 아막성)의 중심지는 기록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원래 성리의 아막성 일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운봉고원에서 공주, 부여로 이어지는 간선 교통로가 그곳을 지나기 때문에 그곳이 중심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통일신라나 고려 이후 운봉고원과 남원의 연결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중심지가 현 운봉읍 방면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운봉고원의 가장 대표적인 신라 산성이 운봉읍이 아닌 아영면 성리에 위치한 사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성리산성을 아막성으로 확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아막성 전투의 향방과 역사성

아막성은 7세기 초에 처음 기록으로 등장한다. 백제의 무왕 재위 3년(602) 국왕이 직접 병력을 거느리고 신라의 아막성을 공격하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이로 보면 일단 그 이전 어느 시점에 아막성 일원은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신라가 축성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1980년대부터 주변 일원에 산재한 고총과 아울러 그 중 일부 대상의 조사와 발굴로 얻어낸 수많은 고고 자료는 당해 지역이 직전까지 대가야의 정치문화권에 속한 곳이었음이 밝혀져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가 돌연 신라의 영역으로 바뀐 것이다. 아마도 그 시점은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사회 전체가 신라에 의해 멸망당한 562년 무렵으로 짐작된다. 대가야가 멸망하는 단초는 551년 백제 주도 아래 신라 및 가야까지 참여된 연합군이 편성되어 당시 고구려 영역이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사건에서 찾아진다. 연합군의 성공적인 합동 작전으로 원래 설정한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었다. 하지만 바로 2년 뒤인 553년 신라가 한강 유역 전체를 독차지하게 됨으로써 연합전선은 깨어지고 말았다. 이로써 433년 이후 오랜 기간 면면히 이어져온 나제동맹관계까지 저절로 파탄을 맞았음은 물론이다.

이에 백제에서는 보복을 위한 전면전을 단행하기로 결정해 성왕의 왕자 여창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3만의 병력으로 신라를 대상으로 충공세를 펼쳤다. 554년 여창이 이끈 백제의 대군은 신라의 중앙부를 겨냥해 추풍령 혹은 그 북쪽의 화령 방면을 향해 진군하던 도중 요충지인 관산성에서 두 나라의 군사가 맞닥뜨렸다. 이 일대에서 한참 밀고 밀리는 일대 격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백제는 동원한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성왕까지 전사하는 참패를 겪었다. 오직 총사령관 여창과 소수의 병력만이 겨우 살아서 돌아갔다.

이때 대가야 주축의 여러 가야 나라들도 백제를 도와 참전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패배로 끝맺음 되자 이제 가야는 신라로부터 보복 공격의 위협에 놓였다. 555년부터 시작된 신라의 충공세로 가야 여러 세력은 하나씩 무너져가 562년에는 전체가 멸망되기에 이르렀다. 백제의 여창, 즉 위덕왕이 바로 직전인 재위 8년(561) 잠시 신라의 변경을 공격한 일이 있었거니와 이는 당시 신라의 공세로 수세에 몰린 가야를 돕기 위한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삼국이 사실상 정립하게 되는 일대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삼국 간 본격적으로 상쟁하는 막이 오른 셈이었다. 아막성 일원은 신라와 백제 사이의 최전선으로 사정 전반이 크게 달라졌다.

이런 흐름으로 미루어 아막성은 이 일대를 장악한 신라가 언젠가 있을 백제의 충공세에 대비해서 쌓았음이 확실시된다. 축성 시점은 당연히 562년이 상한이겠으며 당시 그 부근 일대에는 아막성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몇몇 다른 성까지도 연쇄를 위해 비슷한 시기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방면 산성의 축조에는 그런 특징적 측면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백제가 관산성 싸움의 대패로 입은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망한 아버지 성왕의 뒤를 여창은 곧장 즉위하지 못하고 약간의 공위 기간을 거친 사실이 그런 실상을 말해준다. 군사 조직을 비롯한 내부의 지배체제도 적절한 수준에서 새롭게 재정비하게 되었다. 신라도 비록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새로 편입된 넓은 영역을 안정화시키면서 백제의 역공을 대비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였다. 기왕에 적대국에 소속한 접경지의 주민들을 자국민으로 적극 포섭하고 활용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근의 산성 축성 작업에도 이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아막성 중심으로 분포한 산성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축성된 것이었다.

그동안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비록 약체이기는 하였으나 가야 세력이 끼어 있어 일종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백제와 신라의 두 나라가 직접 국경선을 맞대고 대치하는 국면으로 바뀐 것이다. 두

나라의 접속한 지역 전부가 전장화함으로써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비화해 갈 수가 있었다. 변경에서는 작은 규모의 전투라도 무척 빈발해질 상황이 된 것이다.

두 나라 모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577년 백제의 병력이 신라의 서쪽 변경 일선 지역까지 침투하였으며, 이듬해인 578년에는 신라 병력이 백제의 알야산성을 공략한 사실은 그런 사정의 일단을 보여준다. 아직 총력전이 아닌 변경의 국지전 수준에 그쳤지만 그것은 그 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직전단계의 두 나라 각각 상대국의 내부 동향과 대응책을 가늠해보려는 일종의 탐색전 성격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갓 즉위한 백제 무왕이 602년 갑작스럽게 직접 병력을 이끌고 아막성 대상의 총공세에 나섰다. 백제로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의 준비와 탐색 기간을 거친 뒤의 일로서 이제부터 신라와의 본격적인 전면전을 하겠다는 일종의 신호탄과 같았다. 그런 실상은 일단 무왕이 직접 출정한 사실로부터 자연스레 유추된다. 무왕이 즉위하기에 이르는 배경과 과정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하면 겨우 재위 3년째에 직접 출정한 사실은 예사롭지가 않았다. 무왕은 백제의 왕경인 사비가 아닌 그 동남쪽 지방 익산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아버지를 법왕이라 하였으나 왕경이 아닌 지방에서 생활한 점, 어머니가 과수로서 거주지 부근 연못의 지룡과 관계해서 출생하였다는 설화 등으로 보아 그를 액면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뒤따른다. 아마도 중앙의 정쟁에서 밀려난 방계의 왕손으로 추정된다.

한편 법왕과 함께 아버지 혜왕의 재위 기간이 겨우 1년에 그친 사실도 심상치 않은 측면이다. 그 실상은 뚜렷이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무왕의 태생이나 즉위가 관산성 대패 이후 일어난 백제 내부의 어떤 심각하게 벌어진 정치적 파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음을 유추케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무왕은 중앙의 정치무대에 기반을 거의 갖지 못한 채 무척 혼란스런 상황에서 즉위하였다. 그럼에도 즉위 3년째에 병력을 직접 이끌고 출정해서 신라 대상 선공에 나선 데에는 어떤 내부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아마도 전승을 기대하면서 이를 매개로 내부적인 약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깔리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이 첫 번째의 아막성 싸움에서 백제는 무왕이 건 기대와는 달리 패배하였다. 신라는 승세를 몰아 아막성에서 약간 더 앞으로 나아가 백제와의 접경지에 소타성(小陀城), 외석성(畏石城), 천산성(泉山城), 웅잠성(甕岑城) 등 4성을 새로이 쌓았다. 이들은 물론 앞으로의 백제 공격을 대비해 아막성 중심의 관계망을 한층 더 단단하게 구축하려는 의도 아래 축성되었을 터이다.

무왕은 예기치 않은 패배를 당하고서 영토의 일부까지 상실하자 이제는 좌평 해수로 하여금 보병과 기병을 합쳐 4만에 달하는 대병력을 동원해 아막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병력의 규모나 이후의 전개 양상을 매개로 짐작하면 사실상 이제 전면전을 시작하게 됨을 알리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번 2차의 아막성 싸움도 총사령관 해수만이 겨우 살아서 돌아갈 정도의 대패였다. 그 결과 무왕이 내부적으로 입은 정치적 타격도 작지 않았을 터이다. 신라도 이번 전투에서 수나라에 유학하였다가 갓 귀국한 고승 원광에게 나아가 격동기에 지녀야 할 생활신조나 지침으로서 이른바 세속오계를 처음 배운 두 유망한 젊은이 귀산과 추항이 전사할 정도로 입은 타격도 작지 않았을 듯하다.

무왕은 두 차례나 아막성 중심의 싸움을 도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예사롭지가 않았다.

첫째, 왕정에 정치적 기반을 거의 갖지 못한 상태에서 즉위한 무왕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선공한 점이다. 백제가 이 싸움을 시작하였을 당시 아막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규모면으로 보아 사실상 전면전의 성격을 띤 점이다. 먼저 선공한 사실이나 당시 무왕의 처지 및 이후 이 방면에서 전개되어간 양상 전반으로 미루어볼 때 상당한 의미가 깃든 싸움처럼 비쳐진다. 아막성은 전면전 시작의 상징이었다.

셋째, 1차와 2차에 걸쳐 계속해서 아막성만을 주된 공략의 목표로 삼은 점이다. 이는 아막성이 신라 대상의 전략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하였음을 뜻한다. 아막성은 당시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최고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 싸움은 전반적 흐름으로 미루어 무엇보다 반세기 전에 진행된 관산성 싸움을 연상시킨다. 물론 그 싸움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관산성 패배에 대한 보복전의 성격을 강하게 풍기기도 하였기 때문이겠다. 이때의 전선이 관산성 방면이 아닌 그보다 한층 남쪽으로 옮겨진 사실에서 차이가 날 따름이다. 무왕에게는 이번 아막성 중심으로 추진된 전투가 승패 여부를 떠나 바야흐로 신라와 본격적인 전면전 돌입을 선포한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상에서 7세기 초반 백두대간 일원에서 벌어진 백제와 신라의 전투 양상에 대해 거친 형식으로나마 대강의 추이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아막성이 갖는 역사적 위상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막성 싸움은 554년의 관산성 전투 이후 반세기만에 벌어진 큰 규모의 싸움이었다. 그때의 대패에 대한 일종의 보복전쟁 성격인 셈이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두 나라 사이의

운명을 건 전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런 의미에서 아막성은 백제와 신라 두 나라가 오랜 기간 치른 전쟁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방면 싸움이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데에 주요한 특징이 엿보인다. 그를 기점으로 이후 남북으로 달리는 긴 백두개간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대치하는 하나의 큰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북쪽의 주요 공방 거점이 가잠성이었다면 남쪽은 아막성이었다. 당시 둘 다 신라에 소속하였으므로 백제가 공세적이었다면 신라는 방어적인 입장이었다. 이제 두 산성의 향방은 장차 이 전면전의 향방을 가름해 주는 주요 승부처로 부상한 것이다. 이는 두 산성이 갖는 전략상의 위치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였음을 뜻한다. 가잠성은 현재 위치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이를 지나면 곧장 거창·함천으로 직행해서 낙동강 본류의 중류에까지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기점이었다. 백제가 공략해서 잠시 점거한 적은 있으나 곧장 신라가 되찾은 적이 있는 곳이었다. 이후 신라가 가잠성을 굳게 지켜냄으로써 더 이상의 싸움으로 비화되어 가지는 않았다. 백제는 이 방면을 뚫으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성사시키지를 못하였다.

반면 아막성 방면에 대한 백제 무왕의 집착은 대단하였다. 아막성이 전면전을 추진해 가는 상황에서 갖는 전략적 비중이 그만큼 큰 까닭이었다. 602년 처음 벌인 싸움에서 백제는 실패를 거듭하였으나 10여 년만인 616년 즈음 드디어 공략에 성공하였다. 백제가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데에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셈이었다. 이후 아막성의 배후지로서 기능하던 속함성 일원을 둘러싼 두 나라의 공방전이 상당 기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마침내 624년에 이르러서 백제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아막성은 속함성과 함께 남강수계에 속한다. 이 방면이 무너지면 곧장 남강을 따라 내려가서 낙동강 중하류까지 다다를 수 있다. 한편 중도에서 황강 상류 방면으로 잠시 우회하면 낙동강 중류 방면으로의 진출도 가능해진다. 어느 쪽이던 아막성이 열리면 백제는 낙동강은 물론 신라 왕경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막성 일원은 전략상 두 나라 모두 중시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백제의 공세에, 신라는 방어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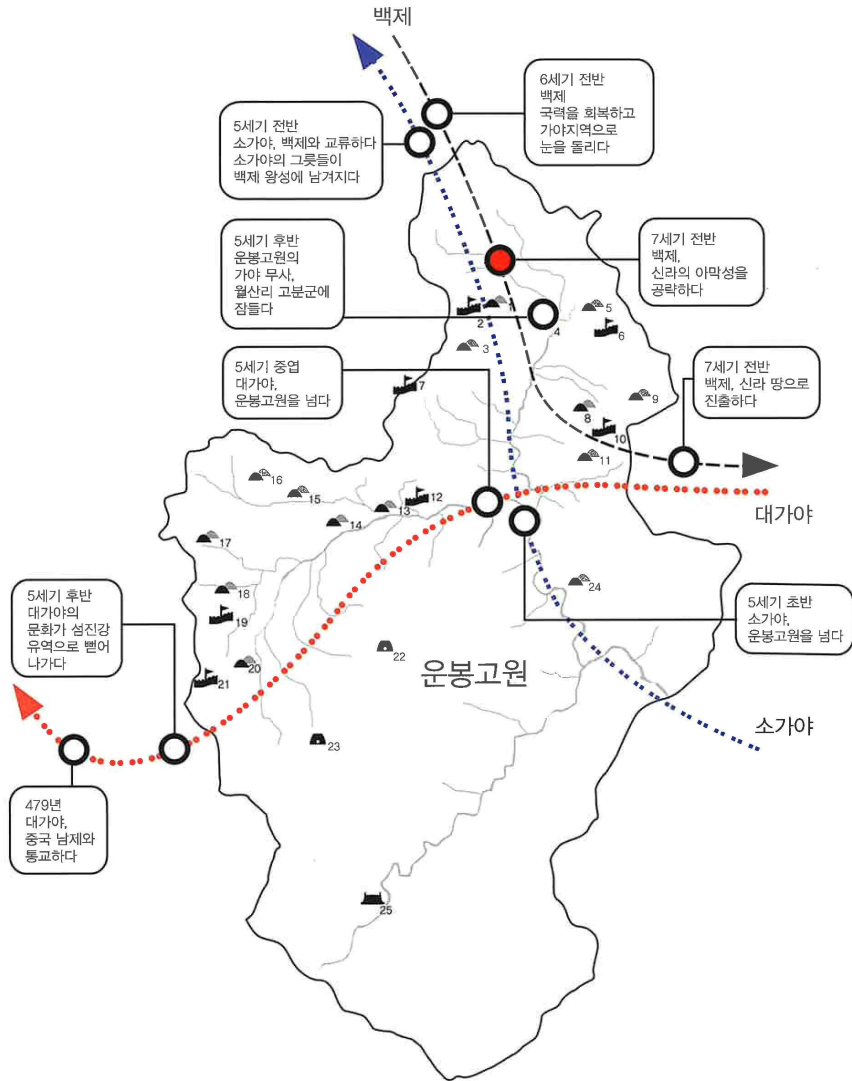
624년에는 마침내 아막성을 뒷받침하던 위치의 속함성 등까지 모두 백제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후 백제의 이 방면 공략이 최종 마무리된 것은 무려 18년이나 지난 642년의 대야성 함락이었다. 남강 유역으로 진출한 뒤에도 다시 그처럼 장구한 세월이 걸린 것은 신라가 이 방면을 놓고 그만큼 강하게 저항

하였음을 뜻한다. 대야성 함락으로 이제 구 가야권의 대부분은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는 90년 전 한강 유역 진출 직후 모습으로 거의 되돌아간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제 백제의 신라 왕경 공략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신라로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를 극복하기 위해 신라는 김춘추가 중심이 되어 고구려, 왜국, 당나라 대상의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사실상 이로부터 삼국 사이의 다툼은 동아시아 국제전의 성격을 띤 통일전쟁으로 비화되어갔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삼국 통일전쟁은 아막성 싸움으로부터 사실상 그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하여도 무방하다. 기왕에 흔히 642년 백제의 대야성 장악을 통일전쟁의 기점으로 잡았지만 사실상 그 단초는 아막성 전투에서였다. 아막성 싸움에서 대야성 싸움까지가 통일전쟁의 제1단계였다면 그 이후부터를 제2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막성 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하겠다.

그것은 아막성의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아막성이 위치한 운봉고원 일대는 백두대간 가운데 편평한 지대였다. 그곳은 낙동강의 큰 지류인 남강의 발원지였다. 아막성 일대가 오래도록 같은 수계인 속함군 즉 경남 함양군에 소속하였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뒷날 고려시대에 남원으로 편입되었지만 원래의 생활문화권은 달랐다. 신라문화권으로 편입되기에 앞서 낙동강이 막히자 대외교류의 창구를 찾으려고 시도한 대가야가 드디어 섬진강 통로를 뚫으면서 매우 중요시한 전진기지가 아막성이 속한 운봉고원 일원이었다. 그것은 아영면 월산리, 두락리에 산재한 대가야계통 고분군과 함께 출토된 유물들은 그런 실상을 뚜렷이 입증해준다. 이 또한 백두대간에서 운봉고원, 그 중에서도 아막성이 갖는 정치적 군사적 비중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아막성은 백두대간 이동에서 섬진강 유역권으로 진출하는 길목의 주요 거점이었다. 한편 북쪽에는 금강 수계가 시작하는 장수와 진안 방면으로 나아가는 기점이기도 하다. 이 일대가 고대사회에서부터 각별히 중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것처럼 세 개의 큰 강이 발원하는 교통상의 최대 요충지로서 여러 갈래의 문화가 접합할 수 있는 특이한 성격의 위치였기 때문이다. 운봉고원이 핵심이라면 최전선에 아막성이 위치하였다. 그래서 신라로서는 아막성을 백두대간 이동을 방어하는 중심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면 백제로서는 낙동강 방면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먼저 공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었다. 무왕이 선공으로 시작한 싸움이 일대를 두고 오랜 기간 공방전이 이어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림 1> 운봉고원 아막성의 지정학적 위치와 변화

신라는 전략적 요충지인 운봉고원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나름의 독특한 방어망을 갖추어 대비하였다. 그것은 단독 산성의 독립적 운용이 아니라 비교적 촘촘하게 쌓은 여러 성을 엮어서 하나의 체계적인 방어 벨트 모양의 연계를 만들어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산맥이 가로놓인 특수한 지리지형인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속함성 6성의 사례를 비롯해, 아막성 중심의 4성 축성, 노진 등 6성의 축성 사례 등으로부터

충분히 유추된다.

이처럼 백두대간 속의 운봉고원에 자리한 아막성은 여러모로 특이한 성격의 산성이었다고 평가된다. 7세기 초 백제 무왕의 선공으로 사실상 신라와의 전면전이 시작되면서 쟁패의 주된 대상이 된 곳이었다. 이곳이 백제의 끈질긴 공격으로 마침내 뚫림으로써 이후 두 나라의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그와 함께 이 지역의 산성 중심의 방어망은 특별히 유념해 볼 대상이다. 하나의 산성이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방어한 것이 아니며 여러 성을 동시에 함께 쌓아 상호 연결되도록 하는 일종의 벨트 형식처럼 운용을 한 점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사례로 길게 형성된 대치 전선이 백두대간이란 높은 산악이 중심이었던 데서 말미암은 현상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여러 실상은 문헌을 통해서 추정 가능하지만 최근 ‘아막성’의 발굴을 통해 그것이 아막성임이 확인됨으로써 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5. 서부 경남의 산성과 아막성

신라는 5세기 후반부터 석성을 쌓기 시작했다. 470년에 축성된 보은 삼년산성과 문경 고모산성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초기 석성은 그 동안 신라가 쌓았던 토성과 축성법이 전혀 달랐다. 이 시기의 신라 석성은 협축식으로 정교하게 쌓은 높은 외벽과 내벽, 보축성벽, 반원형 치, 현문식 성문, 방형 집수지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신라의 석성은 견고하면서도 방어의 효율성이 높았다.

신라는 영토확장을 추진하면서 점령지마다 석축산성을 쌓았다. 이 산성들을 거점성이라 한다. 거점성은 관할 지역의 군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치소성으로 기능했다. 인력과 물자 등 점령지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라가 서부 경남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것은 6세기 중반부터이다. 기록상으로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되는 것은 532년이지만, 서부 경남지역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 신라 산성은 555년 하주를 설치하면서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창녕 목마산성이다. 목마산성은 신라에 석축성이 도입된 이후 약 70~80년이 경과된 시점에 쌓은 산성이지만 초기 신라 석축산성의 특징과 변화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562년 대가야 멸망 이후 가야 고지로 진출한 초기 성곽 중의 하나가 거창 거열산성과 남원 아막성이다. 이 시기 신라 성곽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접경지역에 먼저 거점성을 쌓고, 뒤이어 군사적·행정적으로 필요

한 지점에 성곽을 순차적으로 쌓은 것으로 보인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이르는 동안 신라는 가야지역에서 활발한 축성사업을 전개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아라가야 지역에는 함안 성산산성과 무릉산성이 구축되고 순차적으로 거제 둔덕기성과 옥산성, 다대산성을 쌓았다. 소가야 권역에는 사천 성황당산성, 남해 대국산성, 대가야 권역에는 거창 거열산성과 분산성, 함양 사근산성, 남원 아막성 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서부 경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 산성과 가야 산성의 축성법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 가야 산성은 산정부를 중심으로 세장하게 쌓은 평면형태 500~800m 규모, 가공되지 않은 부정형의 할석, 허튼층쌓기, 점토와 돌을 함께 쌓는 습식쌓기, 암반 노출 구간이나 험한 지형에는 성을 쌓지 않는 단절형 성벽을 특징으로 한다. 석축성벽은 기저부를 성토하고 지대석을 놓은 후 체성벽을 쌓는 양상도 확인된다. 이에 비하여 신라 산성은 내부공간이 넓은 다각형의 평면형태, 장방형이나 세장방형으로 가공된 성돌, 바른층쌓기, 물이 통과되도록 돌로만 쌓은 건식쌓기,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는 연결형 성벽을 특징으로 한다. 성벽의 규모는 500m~1km 정도로 다양하다. 특히 성벽 기저부를 계단상으로 굴착하여 내벽과 외벽의 높이차는 있지만 협축식으로 쌓았으며 성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아랫단의 성돌과 윗단의 성돌이 어긋나도록 하였다. 체성벽 하단에 보강한 보축성벽과, 사다리를 타고 성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현문식 성문도 신라 산성의 특징이다. 성내에는 방형이나 계단식 원형집수시설이 구축되었다.

한편 서부 경남지역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전라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동 시기 백제산성의 축성법은 신라나 가야와 전혀 다르다. 백제는 한성기와 웅진기에는 토성을 주로 쌓았지만 사비기에는 석성 위주의 산성을 쌓았다. 백제 산성의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이 많으며 두 개의 작은 봉우리를 감싸도록 쌓아 방형에 가까운 것도 있다. 규모는 둘레 500m 내외가 대부분이다. 체성벽은 내벽과 외벽의 높이가 비슷하게 협축식으로 쌓았다.

신라와 가야, 백제 산성의 특징을 고려하면 아막성은 축성 주체가 신라임이 분명하다. 아막성의 축조 시점은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는 562년 이후부터 아막성 전투가 벌어지는 602년 사이일 것이다. 대야주가 설치되는 565년 무렵 신라가 운봉지역으로 진출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가야를 멸망시킨 신라는 대가야 영역 중에서도 서쪽 최전방지역으로 먼저 진출하여 이 지역을 신라의 영토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축성법과 출토유물, 그리고 문헌 기

록을 통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아막성의 축조 시기는 대체로 6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 가야, 백제, 신라 산성 축성법 주요 특징

구 분	가야산성	백제산성	신라산성
입 지	산정부	산정부+산복부	산정부+꼭간부
형 태	세장방형	타원형	방형, 다각형
규 모	500~800m	600m	500~1,000m
성 돌	할석	할석	가공석, 장방형
쌓기방식	허튼층쌓기, 습식쌓기	허튼층쌓기, 습식쌓기	바른층쌓기, 건식쌓기
특 징	지대석, 석심토축공법	협축식	협축식, 보축
성 문	개거식(?)	개거식	현문식
성내시설	-	역사다리꼴 집수지	방형, 충단식 원형집수지
주요성곽	함안 안곡산성 장수 삼봉리산성	임실 성미산성 순창 대모산성	남원 아막성 함양 사근산성

이와 더불어 최근 남원시에서는 운봉고원 내 아막산성과 주변 성곽에 대한 성격과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봉고원 내 관방유적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가산리산성을 시작으로 장교리산성, 음지산성, 양지산성, 노치산성, 할미산성이다. 운봉고원 내 산성은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 북쪽 깎재토성을 시작으로 남쪽 할미산성까지 남원평지와 운봉고원의 교통로라 할 수 있는 고개사이에 두고 대부분 축조되어 있다. 또한 남원평지가 잘 조망되어 요천을 중심으로 축조된 태평리·척문리·흑송리 등의 산성 조망 및 감시가 용이하다. 이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고구려의 관방체계 및 낙동강 중류역을 접경으로 두고 배치된 신라와 대가야 관방체계와 성격이 유사하다. 접경지역의 교통로를 확보하여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의 기능과 적의 감시 또는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최전방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운봉고원 내 관방유적 중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한 산성의 규모는 면적 2,537~14,959㎡, 둘레 220~530m 정도이다<표 2>. 모산현의 치소성인 아막성(둘레 650m)에 비해 소규모로서 같은 급의 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보루성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산성은 모두 신라 석성(5~7세기)에서 확인되는 장방형 또는 방형으로 가공한 성돌·바른층쌓기·치·성 내부 집수지 등이 확인되었다. 일부(장교리산성) 보축성벽 또한 확인되어, 신라에 의해 축조된 석성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운봉고원 관방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내용이다.

1) 가산리산성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와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의 경계 산정(550m)에 위치한다. 산성의 주변으로 사치재·모래재·유치재 등의 고개가 위치하여 교통로의 중심에 자리한다. 북쪽으로 사치재를 사이에 두고 유정리산성A가, 남서쪽 운봉고원 내에 황산토성이 위치한다. 성의 평면형태는 북동-남서로 긴 타원형이며,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두른 테피식산성이다. 성벽의 축조방식은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성의 외벽만 쌓은 편축식으로서 외곽과 경사면 사이에는 적심석을 채워서 건식쌓기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의 규모는 14,959㎡(둘레: 530m)로 확인되었다.



<사진 1> 가산리산성 항공사진 및 위치(左)·외벽 전경(右)

2) 장교리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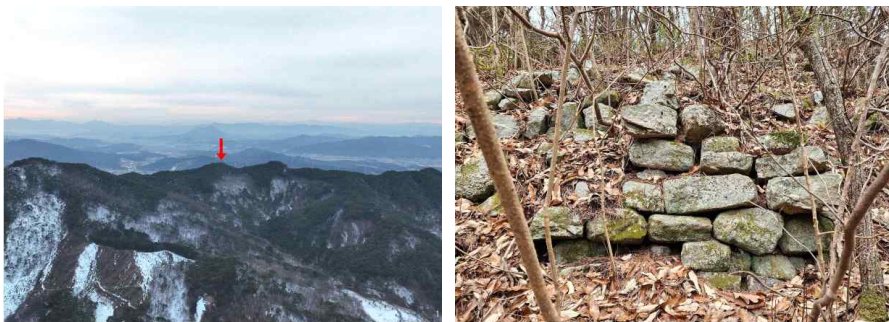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의 북서쪽 산정(595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방어재가 위치하며, 남쪽으로 장치·여원재를 사이에 두고 음지산성이 위치한다. 산성은 ‘합민성’ 또는 ‘합미성’, ‘할미성’ 등으로 불리고 있다. 성의 평면형태는 남북으로 긴 제형이며, 두 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테피식산성이다. 성벽의 축조방식은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성의 외벽만 쌓은 편축식으로서 외벽과 경사면 사이에는 적심석을 채워서 건식쌓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의 규모는 11,247㎡(둘레: 439m)로 확인되었다.



<사진 2> 장교리산성 항공사진 및 위치(左)·외벽 전경(右)

3) 음지산성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와 이백면 양기리의 경계 산정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장치와 여원재를 사이에 두고 장교리산성이 위치하며, 남쪽으로 550m 정도 거리에 양지산성이 위치한다. 음지산성과 양지산성을 합쳐서 ‘준향산성’으로 불리고 있다. 성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산정을 감싸고 있는 퇴피식산성이다. 성벽의 축조방식은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성의 외벽만 쌓은 편축식으로서 외벽과 경사면 사이에는 적심석을 채워서 건식쌓기를 하였다. 산성의 규모는 3,068㎡(둘레: 205m)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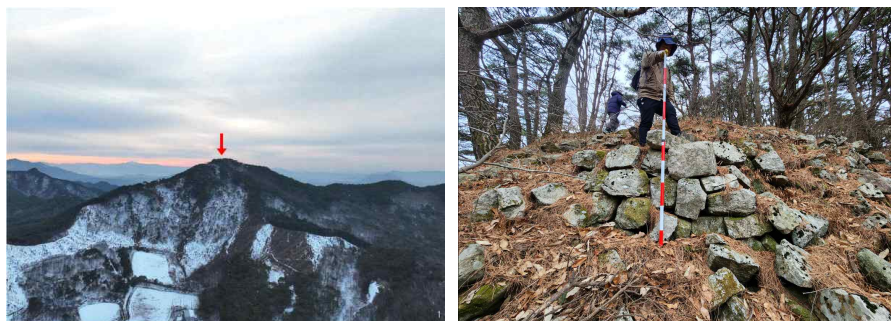


<사진 3> 음지산성 항공사진 및 위치(左)·외벽 전경(右)

4) 양지산성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와 이백면 과립리의 경계 산정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550m 정도 거리에 음지산성이 위치하며, 남쪽으로 입망치를 사이에 두고 수정봉 정상으로 노치산성이 위치한다. 성의 평면형태는 동쪽으

로 상당히 돌출된 ‘L’자형이며, 두 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테피식산성이다. 성벽의 축조 방식은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외벽만 쌓은 편축식으로서 외벽과 경사면 사이에는 적심석을 채워서 건식쌓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의 규모는 5,933㎡(둘레: 382m)로 확인되었다.



<사진 4> 양지산성 항공사진 및 위치(左)·외벽 전경(右)

5) 노치산성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의 노치마을 북쪽 수정봉(804m)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입망치를 사이에 두고 양지산성이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할미산성 및 할미산성보(구룡봉 봉수대)가 위치한다. 성의 평면형태는 표주박형에 가까우며, 두 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테피식산성이다. 성벽의 축조 방식은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성의 외벽만 쌓은 편축식으로서 외벽과 경사면 사이에는 적심석을 채워서 건식쌓기 한 것으로 추정되나, 성벽이 모두 무너져 내려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산성의 규모는 6,265㎡(둘레: 348m)로 확인되었다.



<사진 5> 노치산성 항공사진 및 위치(左)·외벽 전경(右)

6) 할미산성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와 주천면 덕치리의 경계산정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노치산성이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차단성이 위치한다. 운봉고원 내 성곽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성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두 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테피신산성이다. 성벽의 축조 방식은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성의 외벽만 쌓은 편축식으로서 외벽과 경사면 사이에는 적심석을 채워서 건식쌓기를 하였다. 산성의 규모는 $2,537\text{m}^2$ (둘레: 220m)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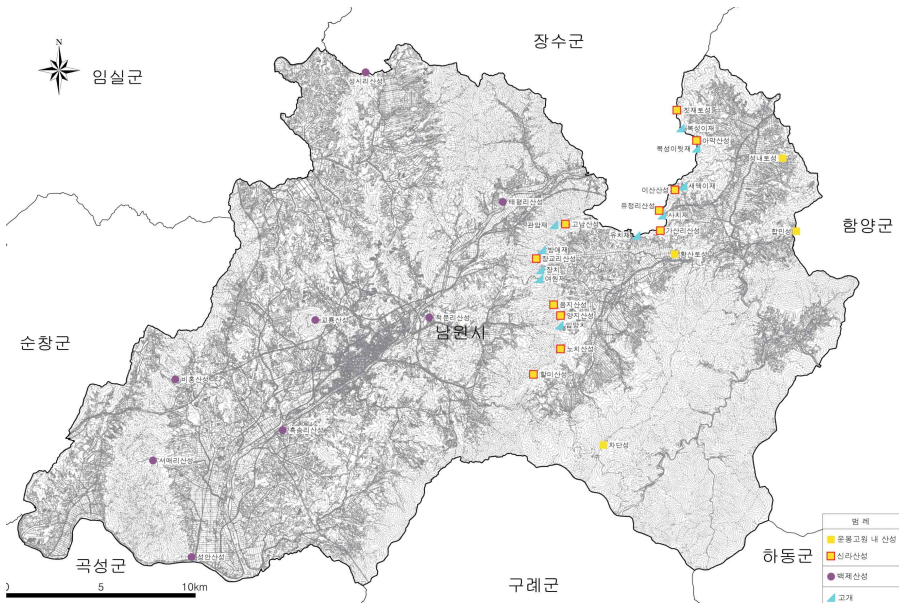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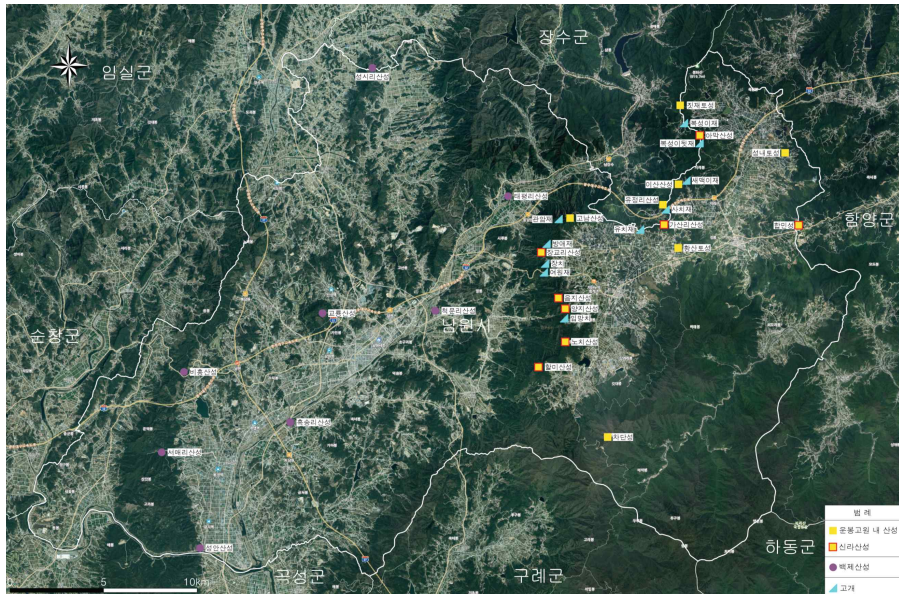


<사진 6> 할미산성 항공사진 및 위치(左)·외벽 전경(右)

<표 2> 남원 운봉고원 내 산성 현황

명칭	소재지	해발(m)	면적(m^2)	둘레(m)	비고
아막성	아영면 성리	700	27,630	650	거점성
가산리산성	운봉읍 가산리	600	14,959	530	보루성
장교리산성	운봉읍 장교리	620	11,247	439	"
음지산성	운봉읍 준향리	670	3,068	205	"
양지산성	운봉읍 준향리	628	5,933	382	"
노치산성	운봉읍 주촌리	800	6,265	348	"
할미산성	이백면 효기리	728	2,537	220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운봉고원 일원에 위치한 석성중에서 아막성의 규모가 가장 크고 아막성을 거점으로 치나 재를 중심에 두고 보루성을 설치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대한 신라석성이 축조된 점으로 보아 아막성이 신라 영역으로 편입된 이후 중요 길목인 ‘치나 재’를 이용한 보루성을 축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남원 운봉고원 내 산성 현황

6.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축적된 남원 아막성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와 『삼국사기』 문헌기록을 검토하여 아막성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또한 그 안에서 아막성이 지니는 역사성을 밝혀 유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막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역사기록에 등장하는 성 중에서 위치가 확인된 소수의 산성 중 하나라는 점이다. 특히, 아막성 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자료가 남아있어 풍부한 역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아막성은 신라의 거점성으로 축성되어 운봉현의 치소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라의 영역확장에 따른 점령지역 경영과 군현의 편제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막성을 통하여 6세기 중엽 이후 신라 토목기술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성내에서 발굴된 칠기 관련 자료는 남원 칠기의 기술적 전통을 1,500년 정도 소급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료로도 평가된다.

다만 아막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산성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성법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성벽 정밀조사와 함께 치와 성문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성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채석장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축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총량을 산출하는데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성 내부 건물지와 추가 집수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필요하다.

운봉고원으로 진출한 신라가 아막성과 함께 쌓은 4개 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당시 신라가 쌓은 4개의 성은 소타성, 외석성, 천산성, 웅잠성이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운봉고원의 산성중 가산리산성, 장교리산성, 양지산성, 할미성 등은 아막성의 축성기법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역사기록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강원중, 2007,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관방체계」, 『호남고고학보』 27, 호남고고학회, 38-70쪽.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남원 아막성의 가치와 의미』.

_____, 2023, 『남원 아막성』.

김세중, 2017, 「호남지방 고대 석축산성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현, 2010,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종욱, 2012, 「7세기 초 신라와 백제의 아막성 전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3, 「602년 阿莫城 戰鬪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9, 한국고대사학회, 171-216쪽.

박종익, 1994, 「古代山城의 築造技法 대한 研究」, 『嶺南考古學』 15, 영남고고학회, 115-168쪽.

서정석, 2002, 『百濟의 城郭-熊津·泗沘時代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심광주, 2023, 「가야 왕성과 산성연구의 현황과 과제」,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5, 『남원 척문리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조선총독부, 1943,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최관호, 2016, 「5세기 후반 신라 복진거점 석축산성의 구조와 성격」,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서고대학연구소, 2003, 『전북 고대산성조사보고서』.

호남고고학회·국립전주박물관, 2025, 『6~7세기 호남동부지역 백제와 신라의 항쟁』.

<Abstract>

The Location Identification and Historical Value of Amakseong

Baek, ok-jong

Seongri Fortress, located in Seong-ri, Ayeong-myeon, Namwon-si, Jeonbuk-do, was designated as the provincial monument Amak Fortress on December 31, 1977, based on its geographical significance, scale, and the association between its location name and the fortress's alternative name. At the time, however, the designation was made without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limiting its historical value. Previous studies, constrained by the absence of archaeological data, relied primarily on documentary evidence, particularly The Samguk Sagi,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mak Fortress with certainty.

Since 2018, a series of detailed topographic and excavation surveys have been conducted, revealing construction techniques characteristic of Silla fortifications from the 6th - 7th centuries and yielding abundant Silla pottery. Radiocarbon dating and other scientific analyses indicate the fortress was in operation mainly during the mid- to late 6th century, coinciding precisely with the period of the Amak Fortress Battle recorded in The Samguk Sagi. This alignment provides archaeological validation of the historical record.

While scholarly consensus now largely supports identifying Seongri Fortress as Amak Fortress, concerns remain regarding potential errors from relying on evidence from a single fortress. To address this, Namwon City has undertaken comparative analyses with other fortresses on the Unbong Plateau, examined ancient transportation networks, and studied Baekje - Silla military conflicts over control of the Baekdu Daegan range. The integration of newly obtained archaeological and scientific data is expected to enable a more definitive determination of Amak Fortress's location and to deepen understanding of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Key Words : Seongri Fortress, Amak Fortress, Amakseong Battle

* Namwon-si Curator